

# 심층의견조사

## ■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

박희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박지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

#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

- 서울시 상공회의소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

박희석 부연구위원 · hspark@sdi.re.kr\*

박지윤 연구원 · jiyoon@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환율상승, 고유가 지속,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서울시 구 상공회의소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07년 서울의 체감경기전망에 대해 설문조사 함
- 이를 통해 기업인 및 일반시민이 느끼는 실제 경기를 알아보고 향후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설문구성은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섹션은 서울지역의 경제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두 번째 섹션은 서울시 구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마지막 섹션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요약함
- 설문대상 및 조사방법은 서울시 25개 구 상공회의소 및 일반시민 104명을 대상으로 방문 인터뷰 및 인터넷 설문을 병행하여 실시함

인터뷰 및 설문조사는 서울시 마케팅담당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지원사업단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음  
본 설문조사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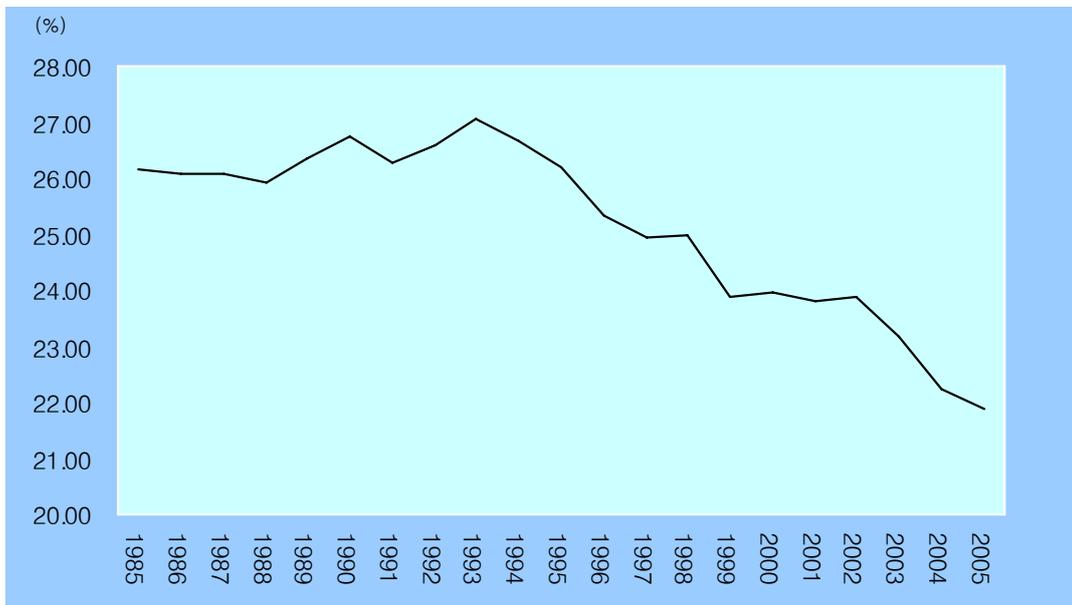
- \* • Kansas State Univ. 경제학 박사, 한양대 경제학 석·학사  
• 포스코경영연구소(책임 연구원), 고려종합경제연구소(연구원)  
• 부동산 경기변동이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서울시 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 • 이화여대 행정학 박사과정, 이화여대 정치학사

## I. 서울지역 경제 현황

### 1. 산업현황

#### 1) 산업별 GRDP

- 전국에서 서울의 GR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21.9%로서 전국 생산의 1/5 이상임
- 1985년 26.2%, 1990년 26.8%, 1995년 26.2%, 2000년 24.0%, 2005년 21.9%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음 (<그림 1> 참조)
- 2005년 GRDP 비중이 높은 산업을 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25.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금융보험업(16.08%), 도소매업(13.92%), 건설업(6.67%), 제조업(6.11%) 순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이 중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985:18.8% → 1995:23.1% → 2005:25.6%), 금융보험업(1985:9.1% → 1995:13.6% → 2005:16.1%)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업(1985:10.3% → 1995:8.5% → 2005:6.7%) 및 제조업(1985:13.3% → 1995:10.1% → 2005:6.1%)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1> 전국에서 서울의 GRDP 비중

<표 1> GRDP 비중 상위 5개 산업

(2000년 기준, 십억 원, %)

산업 분류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184 (18.8)	17,688 (21.5)	26,902 (23.1)	30,461 (24.4)	35,444 (25.2)	36,697 (25.6)
금융보험업	4,416 (9.1)	9,447 (11.5)	15,804 (13.6)	17,457 (14.0)	21,887 (15.6)	23,039 (16.1)
도소매업	6,949 (14.3)	11,805 (14.3)	15,991 (13.7)	19,128 (15.3)	19,465 (13.9)	19,939 (13.9)
건설업	5,024 (10.3)	8,684 (10.5)	9,907 (8.5)	8,383 (6.7)	10,265 (7.3)	9,556 (6.7)
제조업	6,482 (13.3)	9,636 (11.7)	11,803 (10.1)	9,167 (7.4)	9,477 (6.8)	8,751 (6.1)
지역내총부가가치	48,769	82,421	116,481	124,735	140,450	143,238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총부가가치+순생산물세)	52,411	88,926	127,111	138,492	156,224	159,588

자료: 통계청, 각년도 지역소득통계

2) 산업별 종사자 수

- GRDP 상위 5개 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20.45%) 이 서울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표 2> 참조)
- 금융 및 보험업의 GRDP 비중은 2004년 기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다음으로 높으나, 종사자수는 5.42%에 불과함
- 이와 반대로 음식·숙박업의 경우 GRDP 비중은 3.26%에 불과하나 종사자수는 10.5%로 도소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제조업 다음으로 높음

<표 2>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

(단위: 명, %)

산업 분류	1986	1991	1995	2000	200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34,364 (4.68)	200,256 (5.52)	345,245 (8.91)	428,963 (12.00)	636,651 (17.06)
금융 및 보험업	164,059 (5.72)	217,807 (6.00)	249,656 (6.44)	199,312 (5.58)	202,436 (5.42)
도매 및 소매업	566,097 (19.73)	730,911 (20.14)	940,462 (24.27)	816,594 (22.84)	763,193 (20.45)
건설업	317,078 (11.05)	386,673 (10.65)	390,564 (10.08)	236,694 (6.62)	207,124 (5.55)
제조업	880,229 (30.68)	1,133,346 (31.23)	729,057 (18.82)	568,421 (15.90)	464,256 (12.44)
합계	2,869,444	3,629,436	3,874,597	3,574,824	3,732,230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총사업통계(1986, 1991); 각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1995, 2000,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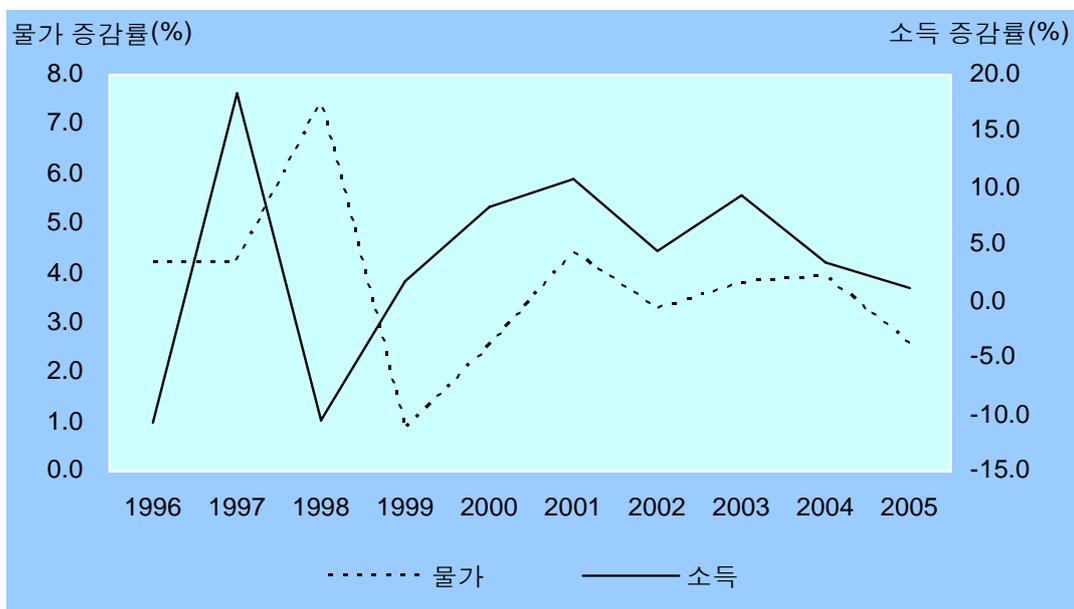


- 제조업의 경우 금천구(3.2), 성동구(2.7)에서 LQ 1.5 이상의 집중도를 나타냈으며, 구로구(1.5), 동대문구(1.4), 중랑구(1.4), 중구(1.2), 종로구(1.1)에서 1.0을 상회함으로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제조업의 상대적 특화를 보이는 지역은 오랜 기간 서울시의 전통적인 생산거점으로 기능해온 지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크게 서남권(구로구, 금천구)과 도심 및 동북권(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의 2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설업의 경우 서초구(2.0), 송파구(1.8), 광진구(1.7)에서 LQ 1.5 이상의 집중도를 나타냈으며, 강남구(1.3), 구로구(1.3), 강동구(1.2), 종로구(1.1)에서 1.0을 상회함
- 도소매업의 경우 LQ 1.5 이상의 높은 집중도를 나타낸 구는 없었으며, 중구(1.4), 용산구(1.4), 동대문구(1.1), 서초구(1.1), 송파구(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중구(2.3), 영등포구(2.2)에서 LQ 1.5 이상의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으며, 종로구(1.4), 강북구(1.1), 서대문구(1.1)에서 1.0 이상의 약간 높은 집중도를 보여줌
- 도시산업구조 변화와 부도심의 성장으로 인해 도심권경제 전반적인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 및 보험업의 특화가 여전히 도심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음
- 이는 무교동 일대에 국내 통화금융기관 본사의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및 중앙정부기관, 대기업 본사 등 도심의 중추업무기능과의 인접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강남구(1.9), 서초구(1.8)에서 LQ 1.5 이상의 집중도를 나타냈으며, 이어 영등포구(1.4), 구로구(1.1), 송파구(1.1)에서 1.0을 상회함
-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이후 급부상한 서울시 동남권 경제(강남구, 서초구)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1990년대 초반, 도심권이 주도하던 3극 체제(도심, 여의도, 강남)에서 최근 동남권의 일극 체제로 사업서비스업의 공간적 특화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함
-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강남구(1.7), 노원구(1.7)에서 LQ 1.5 이상의 집중도를 나타냈으며, 이어 강동구(1.3), 도봉구(1.3), 양천구(1.2), 동작구(1.1), 마포구(1.1), 서초구(1.1), 송파구(1.1)에서 1.0 이상의 약간 높은 집중도를 보여줌
- 이상을 종합하면,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부문에서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일대)의 특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도심권의 금융 및 보험업, 동북권과 서남권의 제조업 특화로 요약할 수 있음

## 2. 소득, 물가 및 고용

### 1) 소득, 물가

- 2005년 서울시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자 소득은 3,223천원이며, 1995년 대비 38.0%, 2000년 대비 32.2% 상승함
- 지난 10년간 소득 증가율의 연평균은 3.6%, 지난 5년간 소득 증가율의 평균이 5.8%임을 고려할 때 2005년도 소득 증가율(1.1%)은 낮은 수준임
- 지난 10년간 소득 증감률의 추이를 <그림 3>을 통해 살펴보면 IMF의 영향으로 1998년 급격히 소득 감소(-10.4%), 1999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2003년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남
- 2005년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2000=100)로 1995년 대비 43.9%, 2001년 대비 19.3% 상승함
- 2006년 11월 현재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122.1(2000=100)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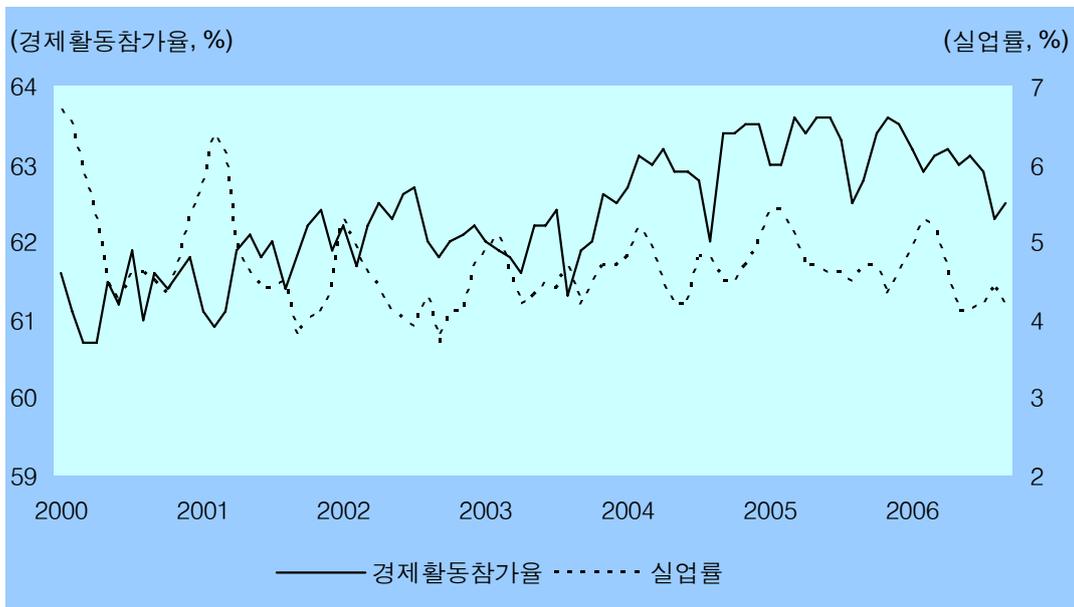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각 년도 서울통계연보; 통계청

<그림 3> 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물가 증감률 (1996-2005)

- 2005년 물가상승률은 2.6%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7%, 지난 5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6%을 각각 1.1%p, 1.0%p 하회하고 있음
- 1999년 이후 물가상승률에 비해 소득 상승률이 더 높았으나,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2004:3.9%, 2005:2.6%)이 소득상승률(2004:3.5%, 2005:1.1%)을 상회함

2) 고용

- 2005년 서울시 취업자수는 2004년 대비 1.2% 증가한 4,890천명, 2006년 11월 현재 서울시 취업자수는 전년말대비 1,2% 증가한 4,948천명으로서, 취업자수 증가율은 지난 5년간 연평균성장률(0.9%)을 상회함
- 2005년 실업률은 4.8%, 2006년 11월 현재 실업률은 4.3%로서 지난 5년간 실업률 평균 4.6% 와 비교할 때 2005년 실업률은 0.2%p 높은 수준이나, 2006년 11월 현재 실업률은 0.3%p 낮은 수준임
- 2005년 기준 청년층 실업률(9.0%)은 서울 전체 실업률(4.8%)의 2배 이상으로서 청년층 실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자료: 통계청

<그림 4>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 II. 기업 체감경기전망조사

### 1. 인터뷰

대상: 강남구 상공회의소 박기상 회장 (우신개발(주))  
 구로구 상공회의소 김한기 회장 (한국오피스컴퓨터(주))  
 성동구 상공회의소 지태섭 회장 (태령물산)  
 용산구 상공회의소 승만호 회장 (용산관광버스터미널(주))  
 중 구 상공회의소 김재용 회장 (서울 남대문시장(주))

기간: 2006년 12월 12일 - 2006년 12월 20일

1. (기업경영에 관한 설문)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서울의 기업경기가 (기업경영)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요인이 2007년의 기업경기에 (기업경영)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기상 회장(강남구)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는 탄탄하며, 환율에 관계없이 수출은 잘 될 것이다. 올해 수출은 3,200억불 달성하였으며, 내년도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3,500억 불까지도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 왜냐하면 국내 경기와 별도로 세계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이미 물적·인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특히 전자, 조선 및 외국에서 수주량이 늘고 있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고속승진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에서 시설투자가 미흡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다. 기업경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며,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경제보다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잘 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업경영에 힘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 김한기 회장(구로구) 서울은 인구뿐 아니라 생산, 소비, 고용, 부의 집중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전체 한국의 경제여건의 향방이 결국 서울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2007년도에 한국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미국, 유럽, 중동, 중국 등 세계경제의 여건과 유가, 환율 등 대외

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우선 국내적으로 볼 때 대선을 앞둔 정치 혼란, 계속 확산되는 평등분배주의, 젊은 세대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부동산 폭등, 중심을 잡기 어려운 국방외교정책, 한미 FTA 협상 방향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과 6자회담의 진행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7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위기성> 이 크게 우려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위기성 가운데서도 미래를 향한 현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2007년도에 현 정부의 가장 중시할 정책적 선택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보다는 국민에게 가장 큰 실망을 주고 정부 스스로도 자존심이 극도로 상한 ‘부동산값 안정화’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준비에 임기 말 한해를 ‘올인’ 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서 이미 지난달부터 BOK의 기준을 인상을 효시로 시중금리의 인상과 더불어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기준강화,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기만 했던 부동산 가격폭등의 주범인 대규모의 토지보상금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중유동성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내년에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공약 남발, 사회질서의 문란, 지역 이기주의 조장 등 전반적 사회기강이 매우 해이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기강의 해이와 금융권의 경색이 자칫 기업에 특히 재무구조와 자금력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쳐 소비감소, 설비투자의 축소, 신규 고용 인력의 감소, 빈부격차의 확대, 노사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든 국내경기가 고유가, 달러 약세 지속과 겹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2007년 한 해는 국가나 기업, 개인 모두가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태섭 회장(성동구)** 서비스산업, 제조업 등 기업의 성격에 따라 느끼는 경기가 다를 것이나 성동구의 주요업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기대 이상으로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경기지표가 좋게 나올지라도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가 좋아져야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체감경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이벤트가 없으며, 설비를 신설하거나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업체가 관내의 5,000개 업체 중 1/10도 안된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

업들의 설비신설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불투명함에 따라 투자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투자하려는 기업이 적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대한 동기나 여건이 미미한 실정이며, 변화에 대해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올해보다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기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 **승만호 회장(용산구)** 서울은 대한민국 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므로 서울의 경기는 우리나라 경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경기를 국가경기로 가정하고 말하자면 금리, 환율, 복핵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금리가 낮아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림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복핵 사태로 인한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확신,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금의 부족을 가져오고, 투자의 부족은 소비의 부족, 저축의 부족을 가져와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김재용 회장(중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장기적 침체로 인한 불요불급한 상품구매억제 등 건축생활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억제, 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 가중,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수출 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업체의 어려움 가중, 그리고 근로자 파업 등 집회증가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사회적 불안 요소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구를 대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경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기를 보면, 남대문 지역의 상인들이 느끼는 올해 경기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이 지역은행에 따르면 예금유치활동이 어렵고, 심지어 임대료, 세금 등이 미납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소상공인들은 담보가 없으므로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져 폐상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올해의 경기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의 주고객인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의 경기 역시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대다수의 상인들은 내년도에 상행위의 번창에 대한 기대감이 미약하며, 최소한 현상유지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한다.

2. (경영상 애로요인) 현재 해당 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기상 회장(강남구) 강남구의 주 업종은 법률, 회계법인, 금융 및 보험, 무역, 유통 등 서비스업체가 다수로서, 중소기업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은 구인난, 노사문제 등과 같은 인력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유동자금은 500조원에 달함에 따라 자금사정은 충분하나, 일할 의욕의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 양질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중소기업의 경영에 악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건비가 비싸 대부분 외국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고학력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에 일하기를 꺼리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 역시 일할 의욕이 부족함에 따라 저하되고 있다. “일하고 돈 받는 의식”, “일하려는 문화”가 좀 더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노동의식이 좀 더 생산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사회 전체가 소비지향적이 아니라 생산지향적으로 나아간다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한기 회장(구로구) 1960,70년대 구로구는 수출단지였으며, 현재 구로지역은 종전의 공단모습을 완전 탈피하여 최신식 오피스 빌딩이 들어섰고, IT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컴퓨터 및 정보통신업 등 최첨단 업체가 밀집하여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최근 1-2년 사이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분야가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IT 관련 업종 및 금융서비스 업종의 진입이 더욱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구로지역에 입주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대기업 대비 자금력의 확보 특히 신용위주의 저금리 자금 조달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또한 구로지역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현 구로지역의 주거환경 미흡 등으로 인해 서울, 경기 등 타 시·군·구에서 장시간에 걸쳐 출퇴근하고 있으며, 저녁시간이 되면 오피스 빌딩의 주변은 텅 빈 도시가 되고 지역 상권도 모두 문을 닫게 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택, 문화 환경 등이 조성된 복합생산단지 및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다.

▶ 지태섭 회장(성동구) 1970년대 성수동 일대는 수출산업기지였으며. 현재 성동구는 2만여 중소상공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1,500-1,600여개의 영세 중소기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7대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안에서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체들의 업종을 IT 관련 산업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갑작스런 업종전환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기존에 성수동에 몰려있던 공장들이 근교 공단으로 이전시 현재 시에서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성수동에 몰려있던 공장들이 근교 각지로 분산되다 보니, 물류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들며, 집적이익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갑작스런 기업들의 환경변화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단 이전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분산정책이 요구되며, 단지화하여 이전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긴다. 뿐만 아니라 업종 전환이나 개발 등은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승만호 회장(용산구)** 인터넷 발달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의 쇠락, 상가 재개발로 인한 공급 과다, 체감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 전자상가의 매출이 좋지 않다. 게다가 미군 이전 예정으로 미군 관련 비즈니스 산업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용산구 지역 전체의 경기도 그리 좋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정대회 등과 같은 캠페인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 **김재용 회장(중구)** 중구 상권은 크게 남대문, 동대문, 기타 중구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남대문 일대는 약 12,000개 정도의 점포들로 대부분 영세상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에 남대문은 도매상권의 중심 즉 물류의 중심지였으나 IMF 이후 유통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으며, 남은 업종은 악세사리, 이동복, 꽃 정도로서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소매업종으로 전환되었다. 소매업종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에 비해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아이템으로 바꾼다든지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규모가 영세한데다 현재 영업활동이 부진하므로 아이템을 개발할 자금과 의욕이 부족하여 변화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구조적으로 건물주, 땅주인, 상인들 등 여러 집단들의 소유권이 얽혀 있어 상이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상가로 개발하여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더라도 전체 시장의 경제활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상인이 점포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하여 경쟁력 있는 아이템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실수요보다는 개발이익을 노릴 경우 시장전체의 경제활성화에는 그리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애로사항이 존재하나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과 내일은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되어 시장의 주요고객층인 중·저소득층의 소비가 진작된다면 돌과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3. (정책적 과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및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기상 회장(강남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기업의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노동력 인력문제에 대한 지원, 일하려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청계천 IT거리 추진, 한강 재조성, 구청에 문화 공간 조성 등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구상 및 금융허브-도시로의 정책 추진은 향후 서울시 경제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등의 산업을 성장시킬 것이고, 향후 서울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김한기 회장(구로구) 첫째,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와 향후 성장성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서울시의 장기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사업영역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구로지역 업체 중에서 서울시 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근로자 중 모범근로자로 초청하여 세미나 및 해외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 밸리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구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의 빌딩 신축과 더불어 이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곳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택 및 문화공간 마련 등과 같은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도 절약되고 IT 업무 특성상 밤 늦게까지도 직장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한 직장에서 같은 분야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인해 기술력이 축적되고 더불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구조, 경제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기존의 디지털 산업단지를 보다 특화하여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지태섭 회장(성동구) 향후 좀더 중소기업의 발전 특히 수출 증가를 위해서 상공회를 통해 전문 통역 요원 등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하다면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일변도보다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신축적인 행정규제나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도로 정비사업시 통행에 무리가 없다면, 강력한 제재보다는 행정지도가 더 상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강력한 제재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부연하여 시가 보다 전폭적으로 상공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의 협력과

신뢰 관계 등을 촉진시키고, 서울의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시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는 일본과 달리 서울시 구 상공회의 경우 시로부터 받는 예산은 교육, 상담 등의 운영에도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자율성 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상공회의 위상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업경영의 원동력은 기업주와 종업원간, 기업체간 신뢰이며,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지키면서 변화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 경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승만호 회장(용산구)** 도시계획에 있어 좀 더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용산전자상가의 경우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 하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음에 따라 상가를 개보수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도시계획법 1조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여한다”라는 도시계획법 1조의 취지를 살려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덧붙여 시의 정책 추진에 있어 투입 대비 효율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 **김재용 회장(중구)** 서울시의 관광객 유치 전략은 남대문 및 중구의 시장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대문, 명동-남대문-북창동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정책이 남대문 및 중구의 경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한다. 또한 이전에는 개최했던 남대문축제가 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축제도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때 아쉬움이 든다.

덧붙여 재래시장의 경우 소유권이 다양하여 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래시장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현실 상황에 맞는 관련 조례나 법의 신축적인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 2. 설문

대상: 서울시 25개 구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강남구(박대립)	금천구(이주택)	서초구(이인희)	영등포구(김영상)
강동구(이정용)	노원구(이종석)	서대문구(박관규)	용산구(이필수)
강서구(김용언)	도봉구(김성만)	성동구(정종만)	은평구(최훈)
강북구(주종화)	동작구(이남균)	성북구(김종율)	종로구(장문영)
관악구(김현수)	동대문구(정영철)	송파구(박전용)	중구(신한)
광진구(전종관)	마포구(김태곤)	양천구(홍성욱)	중랑구(왕명곤)
구로구(윤기호)			

기간: 2006년 12월 12일

서울시 25개 구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 2006년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2.0%는 2007년 서울경제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24.0%는 더 악화될 것이라 보았다.

내년도 경제지표 중 가장 불안한 요소로서 응답자의 36.0%가 물가를 응답했으며, 이어 경제성장률(20.0%), 경상수지(20.0%), 수출액(16.0%)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응답자의 52.0%가 환율, 유가 등의 대외적 환경변화를 들었으며, 이어 내수감소(24.0%), 정책적 지원의 부족(16.0%), 노사관계 악화(4.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내년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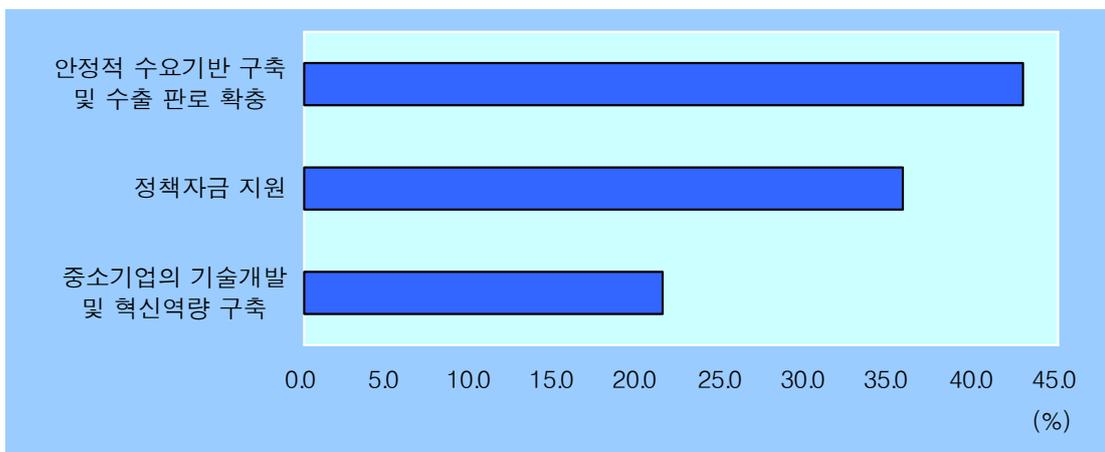
<그림 5> 2007년 경기 영향요인



<그림 6> 기업 경영의 애로요인

해당지역 기업들의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서 응답자의 28.4%가 내수부진, 21.6%가 자금조달을 언급하였으며, 이어 원자재 가격 안정(6.8%), 노사분규(6.8%), 임금상승 압력(5.4%), 대기업 등 관련업체와의 협력부족(5.4%)을 들었다. 해당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되는 사안으로서 <표 3>과 같이 언급하였다.

서울시 25개 구 상공회의소에서 생각하는 향후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 방향은 안정적 수요기반 구축 및 수출 판로 확충(42.9%), 정책자금 지원(35.7%),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역량 구축(21.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향후 서울시 정책적 지원 방향

〈표 3〉 각 구의 지역 현안

구	현안
강남구	강남지역의 건물 임대료 상승, 타지역으로 이전
강동구	지역경제기반 열악, 소비 위축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
강서구	부동산
관악구	중소기업 정책지원
광진구	내수 진작,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구로구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책 강구
금천구	환율 불안에 의한 수출중심 중소기업체 애로
노원구	소비위축, 부동산 불안으로 인한 불만 팽배
도봉구	교통 불편, 벤처 타운 부재
동작구	경제비활성화(기업주들의 불경기)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마포구	판로 확보
서초구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해소, 교통 체증
서대문구	내수부진
성동구	제조업 관련 정책 부족
양천구	소비둔화
영등포구	준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부진 인근구로/금천보다 중소기업 경영여건 불리(디지털 단지 우대 지원)
용산구	유통구조의 변화(온라인성행)
은평구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시장 내수부진
종로구	종로 주변 지역의 낙후(재개발 사업 추진 필요), 봉제단지, 귀금속 단지 등
중 구	관광산업 침체
중랑구	부동산/유동자산의 버블, 내수 소비의 위축

### Ⅲ. 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

대상: 서울시 시정모니터요원 800명<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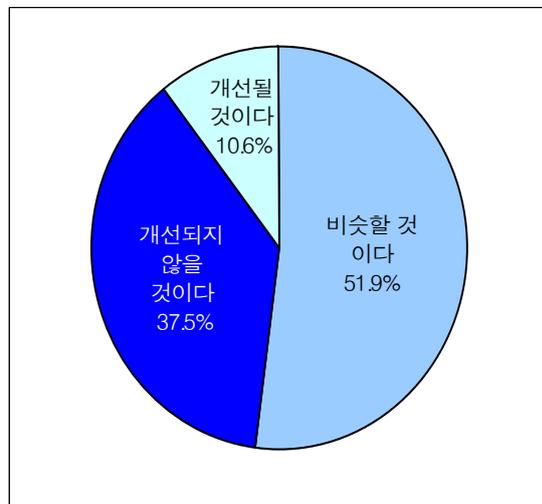
기간: 2006년 12월 12일

서울시정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800명 중 104명이 응답하였다. 체감경기전망에 대한 질문은 전반적인 생활형편, 고용·물가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소득과 지출 측면에 관한 질문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내년의 경기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먼저 응답자를 대상으로 2007년 전반적인 생활형편이 어떨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4.2%였으며,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39.4%,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16.4%로 나타나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보다 많았다.



<그림 8>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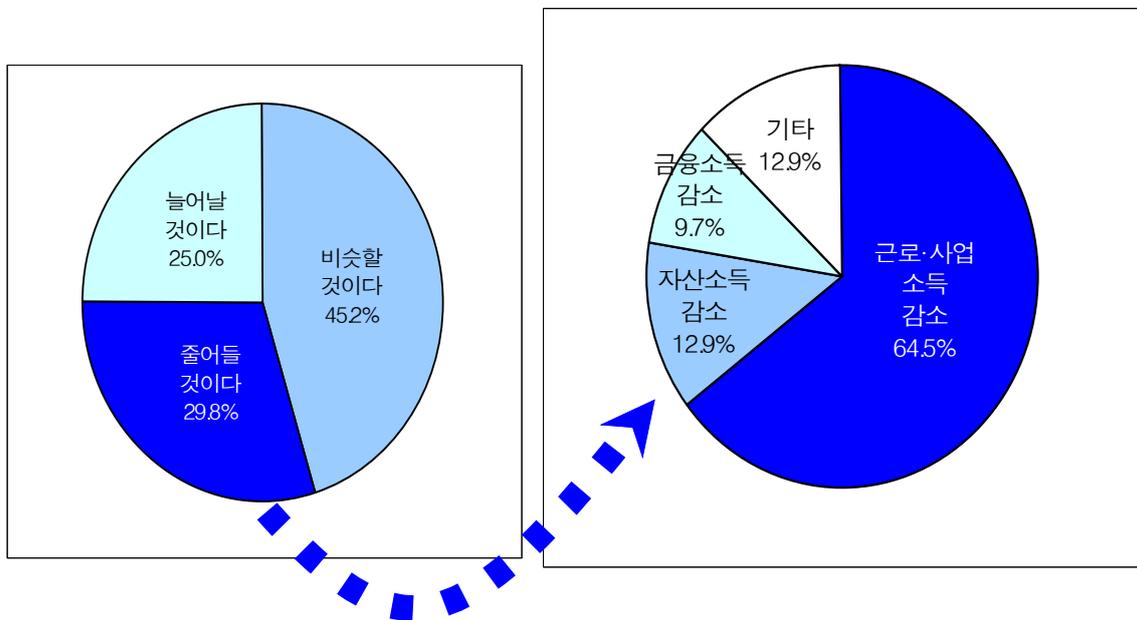


<그림 9> 고용여건에 대한 전망

1) 서울시정 모니터 요원 800명 중 10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51%, 여자는 49%의 비율을 나타냈다. 최종학력은 고졸 17%, 대학재학이 7%, 대졸이상이 77%이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 3%, 100만원-199만원 22%, 200만원-300만원 32%, 300만원-400만원 26%, 400만원-500만원 10%, 500만원 이상은 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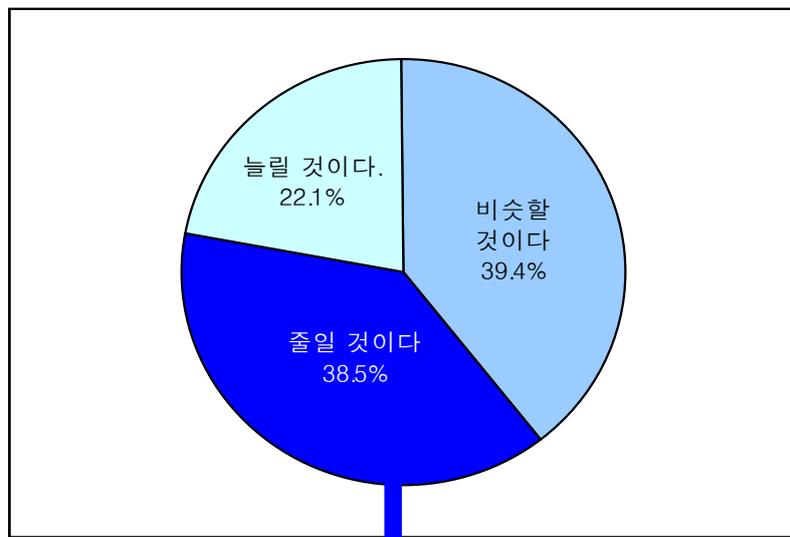
고용여건의 경우 응답자의 51.9%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37.5%,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10.6%로 나타났다. 물가의 경우 올해에 비해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가 전체 응답의 86.5%를 차지하였으며, 12.5%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단지 1.0%만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주택가격의 경우 67.3%가 올해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20.2%는 비슷할 것이다, 12.5%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가계소득에 있어서 응답자의 45.2%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9.8%는 줄어들 것, 25.0%는 늘어날 것이라고 답하였다.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계소득 증가 항목은 임금 상승, 신규 취업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73.0%),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산소득 증가(15.4%), 금융상품 소득 증가(3.8%), 매출액 증가로 사업 소득 증가(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계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계소득 감소의 항목은 임금 하락, 실업, 퇴직 등으로 근로소득 감소(35.5%), 매출액 감소로 사업소득 감소(29.0%),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자산소득 감소(12.9%), 금융상품 소득 감소(9.7%)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세금부담과 공공요금의 상승, 거래처의 도산 예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10〉 2007년 소득 예측과 소득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소비지출에 있어서 응답자의 39.4%(41명)는 2007년의 소비지출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8.5%(40명)는 줄일 것, 22.1%(23명)는 늘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007년 소비지출을 늘릴 것이라 응답한 시민들의 소비지출 확장 항목은 교육 및 자기개발 비용(4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국내외 여행 비용(21.7%)으로 나타났다. 2007년 소비지출을 줄일 것이라 응답한 시민들의 소비지출 축소 항목은 외식 및 식생활 관련 비용(31.0%), 의류, 신발, 악세서리 등 패션관련 비용(21.0%), 도서구입, 영화, 공연 등 각종 문화생활 비용(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소비지출 예측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지출 축소 항목

별첨 1. 일반시민 대상 설문 결과표

	질문 문항	응답수(응답률)
생활형편	아주 좋아질 것이다	3명 ( 2.9%)
	조금 좋아질 것이다	14명 (13.5%)
	비슷할 것이다	46명 (44.2%)
	조금 나빠질 것이다	35명 (33.7%)
	아주 나빠질 것이다	6명 ( 5.8%)
	합계	104명(100%)
고용여건개선	크게 개선될 것이다	0명 (0.0%)
	조금 개선될 것이다	11명 (10.6%)
	비슷할 것이다	54명 (51.9%)
	조금 개선될 것이다	4명 ( 3.8%)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35명 (33.7%)
	합계	104명(100%)
물가상승	크게 상승할 것이다	17명 (16.3%)
	조금 상승할 것이다	73명 (70.2%)
	비슷할 것이다	13명 (12.5%)
	조금 하락할 것이다	1명 ( 1.0%)
	크게 하락할 것이다	0명 (0.0%)
	합계	104명(100%)
주택가격 예측	크게 상승할 것이다	16명 (15.4%)
	조금 상승할 것이다	54명 (51.9%)
	비슷할 것이다	21명 (20.2%)
	조금 하락할 것이다	12명 (11.5%)
	크게 하락할 것이다	1명 ( 1.0%)
	합계	104명(100%)

<계 속>

	질문 문항	응답수(응답률)
가계소득 예측	크게 늘어날 것이다	4명 (3.8%)
	조금 늘어날 것이다	22명 (21.2%)
	비슷할 것이다	47명 (45.2%)
	조금 줄어든 것이다	26명 (25.0%)
	크게 줄어든 것이다	5명 (4.8%)
	합계	104명(100%)
가계소득 증가 이유	임금 상승, 신규 취업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	18명 (69.2%)
	매출액 증가로 사업소득 증가	1명 (3.8%)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산소득 증가	4명 (15.4%)
	주식, 채권, 예금 등의 금융상품 소득 증가	1명 (3.8%)
	기타	2명 (7.7%)
	합계	26명 (100.0%)
가계소득 감소이유	임금 하락, 실업, 퇴직 등으로 근로소득 감소	11명 (35.5%)
	매출액 감소로 사업소득 감소	9명 (29.0%)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자산소득 감소	4명 (12.9%)
	주식, 채권, 예금 등의 금융상품 소득 감소	3명 (9.7%)
	기타	4명 (12.9%)
	합계	31명(100%)

<계 속>

질문 문항		응답수(응답률)
소비지출계획	크게 늘릴 것이다	3명 (2.9%)
	조금 늘릴 것이다	20명 (19.2%)
	비슷할 것이다	41명 (39.4%)
	조금 줄일 것이다	32명 (30.8%)
	크게 줄일 것이다	8명 (7.7%)
	합계	104명(100%)
소비지출 증가 항목	전자제품, 가구 등과 같은 가정 내구재 구입 비용	0명 (0%)
	외식 및 식생활 관련 비용	1명 (4.3%)
	전·월세 등 주거비용	2명 (8.7%)
	교육 및 자기계발 비용	11명 (47.8%)
	도서 구입, 영화, 공연 등 각종 문화생활 비용	0명 (0%)
	국내외 여행비용	5명 (21.7%)
	의류·신발·악세사리 등 패션 관련 비용	0명 (0%)
	자동차 유지비, 택시비 등과 같은 교통 관련 비용	3명 (13.0%)
	전화비 등 통신비용	0명 (0%)
	개인운동 및 운동기구 구입 등 건강관련 비용	0명 (0%)
	개인교제 비용	0명 (0%)
	기타	1명 (4.3%)
	합계	23명(100%)
	소비지출감소항목	전자제품, 가구 등과 같은 가정 내구재 구입 비용
외식 및 식생활 관련 비용		13명 (31%)
전·월세 등 주거비용		3명 (7%)
교육 및 자기계발 비용		0명 (0%)
도서 구입, 영화, 공연 등 각종 문화생활 비용		6명 (14%)
국내외 여행비용		3명 (7%)
의류·신발·악세사리 등 패션 관련 비용		9명 (21%)
자동차 유지비, 택시비 등과 같은 교통 관련 비용		2명 (5%)
전화비 등 통신비용		1명 (2%)
개인운동 및 운동기구 구입 등 건강관련 비용		0명 (0%)
개인교제 비용		2명 (5%)
기타		1명 (2%)
합계		42명(100%)